冲庵의 濟州流配漢詩攷

——「海島錄」을 중심으로——

* 梁 淳 玻

Ⅰ

冲庵 金淨은 中宗 때 趙光祖와 함께 至治主義 道學政治를 실천한 주동 인물로서 전국에 鄕約을 실시하고 미신타파 등 혁신적인 王道政治를 실천하려다가 同王 14년 沈貞·南袞·洪景舟 등의 간계에 휘말려 유배를 당하였다.

中宗 己卯年(1519)에 新進士林派와 勳舊派의 싸움으로 빚어진 士類間의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本稿는 기묘사화로 濟州島에 유배되어 유배생활을 통하여 창작된 冲庵 金淨의 流配漢詩를 고찰함으로써, 冲庵의 流配漢詩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문학사적 위치를 정립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Ⅱ

冲庵은 조선조 成宗과 中宗(1486~1521) 때의 사람으로 유학자요, 정치가이며 문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金淨이요, 본관은 慶州다. 字는 元冲이고, 호는 冲庵과 孤峯이다.[1] 冲庵은 成宗 17년(1486) 9월 5일 忠淸道 報恩 聲足里 본가에서 正郎 孝貞과 許氏夫人과의 사이에서 차남으로[2] 출생했다. 18세 때 진사 汝翼의 玄孫女와 결혼했고 中宗 2년(22세)에 실시한

* 濟州大 敎授

1) 「慶州金氏世譜」 第11卷에 "號冲庵一號孤峯"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문집인 「冲庵先生集」 5卷에 "孤峯亂藁"가 수록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그의 다른 號는 孤峯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前揭書에서 보면 冲庵의 형제는 光·淨·易·李 등 4형제였었다.

增廣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은 刑判에 이르렀다. 그는 처음에 노자·장자의 학문에 들어갔으나 후에는 유학에 정진하여 실로 남보다 한층 높았다.[3] 그는 中宗 14년(1519) 11월 15일 기묘사화로 濟州島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南袞·沈貞 등의 간계로 中宗 16년 11월 30일에 사사되었다. 그의 생애를 대략 다음과 같이 5기로 살펴 볼 수 있다.

1) 第1期 成長修學期 : 출생 때부터 19세 생원시에 합격할 때까지 학습을 수련하던 시기.

2) 第2期 初期出仕期 : 중종 2년(22세) 增廣文科 급제로 첫 관직 성균관 전적을 제수받은 때부터 同王 10년(30세) 淳昌郡守로 재임하였을 때까지 초기 관직생활을 하던 시기.

3) 第3期 陳啓遊歷期 : 中宗 10년(30세) 廢妃愼氏의 복위 상소로 인해 報恩에 유배된 때부터 同王 12년(32세) 풍악산 속리산 등을 유력 침잠할 때까지의 첫 시련을 겪었던 시기.

4) 第4期 至治實現期 : 中宗 12년(32세) 7월 通政大夫·副提學에 임명된 때부터 同王 14년(34세) 資憲大夫 刑曹判書로 재임하였을 때까지 고위관직생활을 하던 시기.

5) 第5期 懷憶自嘆期 : 中宗 14년(34세) 기묘사화로 濟州島에 유배되어 同王 16년(36세) 유배지 濟州島에서 사사될 때까지 불운한 유배생활을 하던 시기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冲庵은 趙光祖가 中宗의 총애를 입어 性理學으로써 爲學의 근본을 삼고 至治를 실천하려 하던 道學派의 중심 인물이었다.

性理學으로써 爲學의 근본을 삼고 治政의 지침을 삼아 그것을 실천에 옮겨감으로써 여기에 일어난 문제는 고래의 학문과의 충돌이었다. 고래의 학문 즉 한문학은 성현의 가르침을 배웠지마는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이용이 위주였고 따라서 詞章에 그 중점을 두었던 것이나 趙光祖 일파는 이것을 詞章派라고 규정하여 크게 배격하였다.

여기에 이전의 학문을 답습하여 나오고 또 詞章을 존중시하여 오던 舊學派에서는 이 趙光祖 일파의 과격한 논조에 크게 반대하여 詞章은 不可蔑視라 외치고 일어섰다. 곧 詞章은 조선의 현실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라 하여 趙光祖 등이 科擧之學의 무가치를 논했을 때 詞章이 반드시 浮華한 것이 아니란 것을 주장하여 趙光祖 일파를 논박하였다. 여기에 조선의

3) 魚叔權「稗官雜記」"冲庵學問 初雖陷於老莊後來所見 貴高人一等"

한문 학계는 완전히 道學派와 詞章派로 분립하게 되었다. 이런 분립은 한층 더 격심하여 갔는데 여기에 주의해야 할 일은 道學派에서는 전연 詞章이 무용이라고까지 논박했지만, 詞章派에서는 그렇게 과격히 도학의 무가치를 논하지 않고 다만 도학도 존중해야 하겠으나 詞章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온건한 논조였던 것이다.

그런데 도학파와 시장파의 분립은 달리 말하면 철학파와 문학파의 분립이라 할 수 있으니 漢文學淨化時代에 있어서 한문학은 비록 불교는 배격 구축했지만 아직 철학과 문학이 확연히 구분되지 못하고 한데 혼돈하여 있었던 것인데 趙光祖 일파의 道學思想이 대두하여 여기 한문학이 철학과 분립되어 문학으로 독립한 셈이었다.[4]

긍정적인 면에서 이 분립의 계기가 한문학이 그 시대의 산 철학적 영향을 받고 어떤 사상적 내용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문학의 진실성을 뜻하는 것이 되어 한문학의 발전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이 신구 세력의 충돌은 기묘사화라는 사건을 발생시켜 趙光祖 일파 등이 희생을 보기에 이르렀다.[5]

위 제 5 기 懷憶自嘆期는 이른바 中宗 14 년 기묘사화로 錦山·珍島 그리고 濟州島에 유배되었다가 中宗 16 년 11 월 사사될 때까지의 시기로 충암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불운했던 시기였다. 곧 생사의 기로에 서서 유형수가 되어 신상을 자탄하면서 보낸 비운의 시기였던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불운한 유배생활을 창작의 계기로 삼아 시인으로서 자질을 발휘하여 유배생활에 직면한 심정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문학적으로 가장 값진 시기였다. 사실 정치 이상의 실현을 위해 조정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던 충암으로서는 불운한 유배가 자신을 성찰하고 유배지의 산림에서 자연과 인정을 느껴보는 계기가 되어 그의 주옥같은 많은 시가 이 유배기간에 창작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묘사화로 冲庵은 中宗 14 년 11 월에 錦山에 유배[6]되었는데 도중 모친을 문병한 것이 화근이 되어 同王 15 년 正月 珍島로 移配, 이어 同王 15 년 6 월에 濟州島에 위리안치[7]되어 同 8 월 21 일에 제주에 도착하여

4) 趙潤濟「韓國文學史」, 探求堂, 1979, pp. 189~196 참조
5) 「國朝文科榜目」을 자료로 仕官数를 조사한 결과 太祖 때 30명, 世祖때 57명, 中宗 때 192 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취세가 職田法을 폐지하게 되었고 신진사류가 훈구파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그것이 士禍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 「冲庵先生年譜(乾)」 "14 年 11 乙巳 南袞等密告下獄杖配錦山"

제주성 동문밖 金剛社 옛터에 있는 초라한 巨老里 廬幕에서 유배생활을 시작하였다.[8] 同王 16년 辛巳 10월에 사사되었다.[9]

충암은 유배생활 중이면서도 濟州島民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을 興學敎化하였다는 점이다. 1500년대의 濟州島는 사람들이 몽매하고 喪葬祭儀의 예를 모르매 淫祀하는 풍속을 가졌고 뱀을 비롯한 동물을 숭배하는 미신이 성행했다.

충암은 이것을 교화하고 흥학하기에 힘썼다. 또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였는데 그 우물은 「判書井」이란 이름으로 오늘날에 전하고 있다.[10] 제주 유배기간에 「海島錄」과 「濟州風土錄」[11]등을 남겼다.

Ⅲ

冲庵이 남긴 유고를 분석해 보면 詩句, 律詩, 排律이 약 6백수가 되며 文으로는 賦 1편, 祭 4편, 辭 2편, 銘 5편, 歌謠 2편, 辨 1편, 書 4편, 疏 6편, 箴 11편, 書札追錄 4편 등등으로 도합 57편이 된다.

이중 충암이 濟州島에 유배되어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을 표출한 한시는 그의 문집 속의 「海島錄」에 수록되어 있다.[12]

冲庵의 시문에 대한 논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中宗 3년에 조정에서 庭試를 실시하였는데 충암은 三十韻 排律로 居魁가 되어 임금도 그의 자질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의 詩才를 내외에 두루

---

7) 中宗實錄 30卷, 15年 庚辰 正月條 "移配珍島…命減死安置濟州, 辛巳十月戊申命賜自盡"

8) 「冲庵先生年譜(乾)」 "八月二十一日始到謫所廬于州城東門外半里許金剛社"

9) 中宗實錄 43卷 16辛巳 10月條 "辛巳 十月戊申命賜自盡"
우리의 역사상에서 손꼽히는 지성인으로서 그 인물이 「정치인+학자+문학가」가 아닌 사람이 드물고 또한 생활이 「출사+유배+은둔」이라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드물다(鄭炳昱「孤山尹善道」〈문학사상〉 1974, 1월호 pp. 293~300 참조)고 하였는데 冲庵은 그중 대표적으로 「출사+유배+은둔+사사」한 경우가 된다.

10) 「冲庵先生年譜(乾)」 "濟州之俗尙淫祀而曠於禮先生 施喪葬祭儀 以導之琨俗一變島 中文敎之興始此島地蜒瘴墊濕水泉多嘔泄病人 先生於謫廬之傍鑿 一井甚淸冽飮而甘之後人慕之名 其井曰判書井"

11) 冲庵이 中宗 15년 8월에 제주에 유배되어 동왕 16년 10월 사사될 때까지 유배생활 동안에 쓴 제주도의 지역풍토지로서 최초의 것임.

12) 「冲庵先生集」의 「海島錄」에 5絕 8수, 5律 15수, 7絕 15수, 5排 2수, 7排 1수 등 도합 41수가 수록되어 있다.

알리게 되었다.[13]

魚叔權은 「稗官雜記」에서 충암이 시문에 능한 것으로 한 세상에 이름이 났다. 그러나 그가 저술한 것이 유실되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 몇 편 없다[14]고 하였다.

尹根壽는 「月汀漫筆」에서 己卯諸賢들의 한 시대의 평론이 문장은 한나라의 법을 본받았고, 글씨는 진나라의 법을 본 받았으며, 시는 당나라의 격조를 배웠으며 인물은 송나라의 여러 유학자로서 표준을 삼았으니, 金元冲, 金大柔, 奇子敬 등이다. 冲庵과 德陽의 시는 아주 훌륭하다. 그의 유고집은 모두 부인한테 보관되어 있었는데 보았더니, 정말 당나라의 음조였다[15]고 하였다.

許筠은 「惺叟詩話」와 「鶴山樵談」에서 중종 때의 시인을 평하여 우리나라의 시는 中宗 때에 와서 크게 이루어졌다. 容齊 相公이 처음 시를 짓기 시작하자 訥齊 朴祥과 企齊 申光漢, 冲庵 金淨, 湖陰 鄭士龍 등이 모두 함께 나와서 빛을 번쩍이고 쇠 부딪치는 소리를 내었으니 천고에 빛났다고 이를 만하다[16]라고 하였다.

이어 許筠은 明의 문인들과 견주어 평하되 우리 나라 金季昷, 南止亭, 金冲庵, 盧蘇齊의 문장을 명나라의 열 사람 가운데 놓는다면 董玘·李坤과 견주더라도 또한 많이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 천지에서 팔을 마음껏 휘두를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17]고 하였고, 또한 우리나라의 金季昷, 金悅卿, 朴仲說 李擇之, 金元冲 등이 시를 지었는데, 비록 何景明, 李夢陽, 王元美, 李于鱗 등을 따라갈 수야 없지만 吳國倫, 徐中行 이하 사람들에게야 어찌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일곱 사람이 함께 중원천지를 돌아다닐 수 없음이 한스러울 뿐이다.[18]고 논평한 바가 있다.

「己卯錄補遺」에 보면 문장은 정묘하며 심오하고 넓리 西漢의 체제를

13) 中宗實錄 5卷 3年 戊辰 3月條 "己卯聚堂下官文臣于殿命製李陵送蘇子卿還漢七言排律三十韻傳曰庭試居首正言金淨加資其次蔡紹權兒馬一匹"

14) 魚叔權 「稗官雜記(4)」 "金冲庵淨以能詩文各一世所著遺失存於世者無幾"

15) 尹根壽 「月汀漫筆」 "己卯諸賢一時之論以爲文則法漢書則法晋詩則學唐人物則當以宋諸儒爲準如金元冲金大柔奇子敬輩是已冲庵德陽之詩工其集俱在夫人得見之固是唐調

16) 許筠 「惺叟詩話」 "我朝詩至 中廟朝大成以容齊相倡始而朴訥齊祥 申企齊光漢 金冲庵淨 鄭湖陰士龍並生一世炳鎣鏘只稱千古也"

17) 許筠 「鶴山樵談」 "我東方金季昷 南止亭 金冲庵 盧蘇齊之文置十人中比諸董芧亦不讓而不得攘臂於中原惜"

18) 前揭書 "我國金季昷 金悅卿 朴仲說 金元冲等製作雖不及何李王 李而豈有媿於吳徐以下人邪然不能與七子周旋中原是可恨也"

따랐고, 시학은 盛唐體를 본받았다[19]고 하였다.

끝으로 「慶州金氏世蹟錄」에 보면 '一掛眠終身不忘 文注西京 詩學盛唐 雄健俊逸 不沿襲陳言'이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冲庵은 시문에 우수하였음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암은 士林의 유신으로 道學과 사상 일변도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詞章派를 능가하는 詩才를 발휘한 문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冲庵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中宗 14년(1519) 기묘사화로 말미암아 유배, 同王 15년 6월에 제주도에 위리안치, 同 8월 21일에 죽음의 땅인 제주도 해안가에 이르게 되었고 낯설은 환경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20]

그의 삶은 한 때 화려했던 권좌의 절정에서 반대파의 모함으로 유배당하는 급전직하의 신세가 되었다.

충암은 무섭게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발 디딜 땅을 찾기가 어려웠고 막연한 은사와 복권의 기대감을 가지고 생사의 하루를 살아가려 하였을 것이다.

그는 그러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갈등을 마음으로 피어오르는 시상에 기대어 표출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이란 생사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과도 같은 것이기에 이른바 좌절·억울·절망·불안·초조·고독 등과 신상을 자탄하는 정신적 상황을 표출하고 있다.

유형수로서 암담한 마음을 통하여 그의 눈에 비치는 세상사는 모두 어둡고 그늘진 색채를 띠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선비들이 폐죽음한 사화 이전의 시적 분위기인 유유자적하는 한정을 노래한 시와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冲庵이 제주도에 유배된 기간에 지은 유배한시는 주로 그의 문집 속의 「海島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의 주제적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정리해 보면

1) 身上의 自歎
2) 隱遁逃避와 自然愛
3) 無常과 懷鄕
4) 別恨과 痛恨

19) "文章精深顚愕遠追西漢詩學則盛唐"(己卯錄補遺上 金淨條)
20) 註 7) 참조

등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身上의 自歎

유배지에서 자기의 불운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신상을 자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시를 예거할 수 있다.

冲庵은 珍島에 絕島安置되고 난 후 제주도에 위리안치 당하는 가중죄를 받는다. 그가 제주도로 유배가기 위해서 海南 바닷가에 이르러 길가 白老松 밑에서 쉬면서 7언절구 3수를 지어 소나무에 刻字를 했다.[21] 그러나 그 刻字한 것을 찾아 볼 수는 없다. 다만 제주도 한라산의 백록담 동벽 높이 4~5미터 길이 약 20미터 정도의 병풍형 바위 한 구석에 「金淨」이란 刻名이 있어 「淨」자가 거의 마멸되어 희미해졌지만 아직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부터 460년 전의 일로 여기를 찾는 이들에게 지난날의 回憶에 젖게 한다.

題路傍三首

枝條摧落葉鬢影　가지는 부러지고 잎새는 헝클었는데
斤斧餘身欲臥沙　도끼에 상한 형상 모래 위에 누우려 하네.
望斷棟樑嗟已矣　네몸이 동량되기는 이미 글렀으니
查牙堪作海仙槎　굽은 가지로 바다 신선이 뗏목이나 만들게.

海風吹過悲聲遠　바닷바람 불고 가니 슬픈 소리 멀어지고
山月高來瘦影踈　산에 외로이 달 떠오르니 여윈 그림자 성기었네.
賴有直根泉下到　그 곧은 뿌리 샘 이르러서
雪霜標格未全除　눈과 서리에도 그 기상 전혀 없어지지 않네.

欲庇炎程喝死民　뜨거운 길, 더위 먹은 사람 쉬어가게 하려고
遠辭巖壑屈身長　바위구렁 멀리 하직하고 길가에 긴 몸 굽혔네.
斤斧日尋商火煮　춘 도끼 날마다 찾아오고 가을볕 뜨거운데
知公如政亦無人　진시황만큼 그 공 아는 이 세상에 없네.
〈「冲庵先生集」卷 3 「海島錄」〉

위의 7언시 「題路傍松 三首」는 당시의 士林들이 이 시를 전해 외우면

21) 魚叔權「稗官雜記」"金提學淨……至海南之海涯憩道傍老杜下 吟成三絕 白松木而書之"

서 모두 자탄해 마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도로 유배당해 가는 충암의 정신적 상황이 잘 그려져 있다.

이른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環海天險의 섬으로 입지적, 자연적 조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平常人의 제주도 왕래도 至難한 일이었으며 유배인의 제주도 입도는 생사간의 문제였을 것이다.

충암은 소신껏 충의로 군주를 섬기었으나 유배당하여 험난한 제주도에의 유배길에 불안해 하는가 하면 유배당한 처지가 된 자신을 자탄한 정감으로 표백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수의 시에서는 선비의 굳은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 수의 시에서는 동량재가 되기에 이미 틀려 버린 자신을 자탄하고 있음을 본다.

夢

溟浪千里隔 바다물결은 천리를 막혀 버리고
蓬山一夢傳 봉래산에 한 꿈을 전하려하나
思君下可見 그리운 임은 볼 수 없어라
知我者其天 하늘은 나를 알아 줄 것인가.
〈前揭書〉

冲庵은 5언절구 「夢」에서 절박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임에 대한 그리움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표백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자신의 진정을 꿈에서나마 임에서 전하고자 하나 바다로 천리가 가로 막혀 그리운 임을 볼 수 없음을 자탄하고 있다. 그만큼 제주도는 죽음과 죄수의 땅이요, 꿈마저도 단절당하는 원악지인 것이다.

이러한 자탄은 그의 5언절구 「雨」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雨

落木荒城雨 마른 나무 가지 황성에 비가 내린다.
空堂獨坐時 빈집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遙懷在千里 멀리 천리에 있음을 생각한다.
誰與寄雲涯 누구와 더불어 구름가에 전하리.
〈前揭書〉

쓸쓸히 비오는 날, 황성 옛터의 텅빈 집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자신이 천리 밖에 떨어져 있음을 생각하고 지난 날의 회상에 젖으며 자탄하게 되

는 것이다. 時空이 '千里'로 표현되어 있어 자꾸만 王都에서 멀어져가 고 있음을 느낀다.

이어 그의 5언율시 「遣懷」에서도 신상을 자탄한 정감이 잘 표백되어 있다.

遣懷

黃國恒陰翳 바다는 언제나 그늘져 있고
荒村盡日風 거칠은 마을에 온종일 바람.
知春花自發 봄이 왔다 꽃은 피는데
入夜日臨空 밤이 들자 하늘엔 달만 동두렷.

鄕思千山外 천리 밖 이역에서 고향 그리워
殘生絕島中 왕래 드문 고도에서 잔명 이어가
蒼天應有定 하늘은 운수를 정해 놓았을 텐데
何用哭途窮 막다른 길이라 울어 무엇하리.
〈前揭書〉

위의 5언율시 〈遣懷〉에서 제주도에 위리안치된 유배의 상황에 직면한 충암이 그 정신적 상황 및 유형수로서의 신상을 자탄한 정감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柙圍罪人으로 느낀 바다와 바람은 '山高積雪經春在 海濶長風盡日吹'에서처럼 낭만적 정감과는 달리 '언제나 그늘져 있는 바다요, 온종일 거칠은 촌마을에 부는 바람' 그것이었다. 그러면서 유형수로서의 자탄은 절해고도에서 잔명이 이어질 때까지 심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탄적 정감은 달이 둥두렷이 뜨는 날이면 한층 더하는 것이다.

絕 國

絕國無相問 절해고도라 찾아주는 이 없고
孤身棘室圍 외롭게 몸은 위리안치 되었으나
夜如關塞近 꿈은 관새 가까이 오락가락
僮作弟兄依 머슴애 의지하여 형제삼으나
憂病工侵鬢 수심의 병은 귀밑털에까지 나타나고
風霜未授衣 찬서리 바람부나 겉칠 옷도 없어라.
思心若明月 그리운 마음은 명월과 같이
天末寄遙輝 저하늘 끝에 멀리 빛을 전할까나.
〈前揭書〉

위의 5언율시 「絕國」에서도 유형수로서의 자탄을 쉬 찾아 볼 수 있다. 전직 六卿의 벼슬 자리에 있었던 충암으로선 유배생활이란 육체적 고통과 외롭게 지내는 정신적 고통이 뒤엉켜 참기가 매우 괴롭고 지통이었을 것이다. '孤身棘室圍 夢如關塞近……憂病工侵髮'은 바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충암의 처지다. 頸聯의 '憂病工侵髮'은 杜甫의 「登高」에 나오는 '간난에 서리같은 귀밑털이 어지러움을 슬허하노라(艱難苦恨繁霜髮)'과 그 시상이 같고, 유배지에서 언제 돌아갈 기약없이 몸도 못가누는 병든 충암의 심정이 서려 있다.

이러한 자탄은 7언절구 「山雨」에선 한층 더 잘 표백되어 있다.

山 雨

蕭蕭山雨下茅庵 쓸쓸히 산비가 초막에 내리는데
秋老荒城晩色酣 늦가을 황성의 밤을 술로 달랜다
故國山川魂自往 내 넋은 고향산천을 오락가락하건만
不知身在海天南 몸은 남쪽 海天가에 있어, 언제면 돌아가리.
〈前揭書〉

쓸쓸한 유배지에서 깊어가는 가을 밤 술로 자신을 달래다가도 꿈꿀 때마다 고향의 산천이 그리워지기만 하는 것인데 그럴수록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의 불운을 자탄하게 되는 것이다. 절해고도의 삭막한 정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故園에의 정이 그칠 줄 모르게 표백되어 있다. 故園에의 정이 깊어가면 갈수록 遠地로 유배당한 신상의 자탄도 한결 드높아지는 것이다. 유배당한 처지이면서도 늘상 마음은 처자식이 있는 고향이 뇌리에 떠오르건만 黑潮로 씻겨가는 제주 바닷가에서 大海原을 바라보면, 이 큰 바다를 언제면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며 바다를 향해 마음 속으로 울부짖었을 것이다. 이것이 비오는 날이면 술을 기울이고 思鄕에 젖는 수심이 저 제주 바다보다 깊어만 갈 것이다. 轉·結의 '故國山川魂自往 不知身在海天南'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달으며 자탄한다. 孤臣의 寃淚가 담긴 7언절구라 하겠다.

夢 先

棄時悲學道 죽음에 이르니, 도를 배웠음이 슬퍼지고
身辱愧移忠 이 몸 욕되게 移忠에 부끄럽네.

宿草荒丘壟 우거진 풀은 무덤 뒤덮고
時羞闕奠供 薦新은 올려보지도 못한다.
憂喜精先感 근심과 기쁨은 정령이 먼저 느끼니
幽明氣本通 유명의 기는 본디 상통하여서일까.
劃情翻易覺 애달픈 정에 그만 깨고나니
餘淚恒幽忡 흐르는 눈물 가슴에 메어오네.
〈前揭書〉

위의 5언 율시 「夢先」에서 충암은 충효의 도를 다하지 못하고 조상의 영전에 대한 죄스러움과 후회와 근심으로 얼룩져 있음을 표백하였다. 그는 유배된 자신을 진정으로 성찰해 보면서 막혀오는 가슴을 억제하며 좌절에 가까운 눈물을 뿌리며 자탄에 잠기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을 끝내는 비통한 楚辭風의 「臨絕辭」[22]를 써서 천추의 한과 원을 남긴다. 곧 충암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그 뜻이 꺾이고 사사받게 되자 「臨絕辭」를 남기고 자진하였다. 곧 辛巳년 10월에 접어들자 勳舊詞章派들의 집요하고 졸렬한 간계로 말미암아 中宗은 그들의 상소에 못이기어 충암 등 신진 사림파 유신들에게 자진을 명하게 된다. 제주도에서 유배생활한 지 불과 10개월이 넘은 이른 가을이었다.

臨絕辭

投絕國兮作孤魂 절지에 귀양 와 외로운 넋이 되도다.
遺慈母兮隔天倫 어머니를 두고 가니 천륜도 어겼나니
遭斯世兮殞余身 이 세상 두고 이 목숨 끊어지나
乘雲氣兮歷帝閽 구름을 타고 임금 계신 곳에 가리.
從屈原兮高逍遙 굴원을 따라 높게 소요하련만
長夜冥兮何時朝 기나긴 어둔 밤 언제면 아침이 되리.
炯丹衷兮埋草萊 밝은 일편단심은 쑥밭에 파묻히고
堂堂壯志兮中道摧 당당한 뜻 중도에 꺾이었으니
嗚呼千秋萬歲兮應我哀 오호라, 천추만세에 내 슬픔 더 하리로다.
〈「冲庵先生集」 卷 4〉

역경에 처했을 때, 인간은 긴장해지고 또 반성과 회한의 시간을 갖게 된다. 비록 그 유형이 모략과 중상에 의한 사실 무근의 것이라 하더라도

22) 冲庵의 「臨絕辭」 연구는 극히 드물다. 「絕命辭」로 알려있으나 「冲庵先生集」에는 「臨絕辭」로 기록되어 있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冲庵의 濟州流配漢詩는 「海島錄」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데 「臨絕辭」는 그의 文集 卷 4에 수록되어 있다.

絕島나 혹은 변경에 가서는 체념과 함께 사색의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인생과 자연을 진지하게 관조하는 버릇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주인인 군주의 召命이 속히 내리기를 기다리게 된다.[23] 그러나 충암의 경우 끝내 반대파에 몰려 군왕의 자진 명령을 받는다. 그는 스스로 絞死 자결한 惜命이었다.

이 비장한 충암의 「臨絕辭」는 자탄에 일관한 젊은 36세를 최후로 하는 조선조의 楚辭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편협한 사대부·유학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중국 고대 楚의 자결자 屈原에 운명을 의탁하여 楚辭風의 辭世絕命詩를 남긴 것은 그의 비극 외에도 큰 충격이 된다[24]고 하겠다. 곧 「臨絕辭」는 楚辭風의 絕命詩로 죽음에 임하여 세상사를 마감하고 그 짧았던 생을 돌아보며 원한이 맺힌 신상을 자탄하고 그러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음에도 달관의 경지로 전혀 심사를 흔들리지 않고 태연자약한 충암의 내심이 여실히 드러난 시라 하겠다. 곧 이 「臨絕辭」의 제 7·8·9구에서 이제 단심과 충의와 절개를 다북쑥 우거진 풀밭에 파묻고, 예전에 그토록 당당했던 큰 뜻이 사악한 소인배들에 의해 다 펴지 못한 아쉬움을 노래하였고, 충절을 아는 후세의 선비들은 이 좌절된 웅지에 한과 원이 맺혀 비운의 한 시대를 살다 간 자신을 위해 슬퍼하리라는 한 가닥 바램으로 스스로를 달래는 心志를 표백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유배자들의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심경을 승화시키고 집약하였다. 그의 「臨絕辭」는 그러한 점에서 값있다고 하겠다. 그의 비극을 통해서 제주도는 그를 제주도 문화의 현덕으로 기리게 된 것이다.

2) 隱遁逃避와 自然愛

유배당한 몸으로 현세의 일체에서 은둔도피하려는 심정을 표백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시를 예거할 수 있다.

寓 興

迢迢雲影小窓陰 아득한 구름 그늘이 창을 살짝 가리고

23) 張德順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pp. 362~363.

24) 文璇奎 「韓國漢文學史」(正音社, 1961) p. 223에서 이 시에 대해 "조선시대의 賦文學은 거의가 作詩餘興에 의한 산물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좋은 작품을 들면 絕命詩이다"고 하였는데 죽음 직전에 시를 쓴다는 것은 作詩餘興이 아니라 절실한 자기욕구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虛室無人伴獨斟 벗없이 빈방에서 홀로 잔을 기울인다.
唯有隔林禽魯樂 오로지 성긴 수풀사이 새울음만 짖어대며
提壺終日弄春音 술병끼고 앉아 하루종일 봄소리를 즐기네.
〈「冲庵先生集」卷3「海島錄」〉

宦海風波에 시달려 유배당하고 보니 저절로 속세를 逸脫하여 산수를 벗삼고 은둔도피하게 마련이다. 冲庵의 7언절구「寓興」은 그러한 도피적·은일적 정취가 풍기는 시적 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도피적·은일적 취흥에 젖어 오로지 성긴 숲사이에서 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적소의 빈집에서 벗없이 홀로 앉아 對酌할 수 없어 자음자작하며 봄날을 보내는 시인의 애상적인 정조가 나타난 작품이다. 이어 7언절구「寥落」에서도,

寥 落

寥落幽軒散奕基 쓸쓸히 어둠깔린 난간에 호기가 널려있고
柴門無客掩多時 사립문앞 찾는 손 없어 닫힌지 오래인데
階庭鳥雀遲春晝 뜨락엔 까치새가 봄낮을 더디하고
柿葉陰中理網絲 감나무 잎이 드리운 그늘 새로 햇살이 실같이 비치네.
〈前揭書〉

찾아 올 손님이 없어 사립문도 닫힌지 오랜 적소에서 쓸쓸함을 달래는 한편 유배생활에서 脫俗의 경지에 깊이를 더해가는 도피적·은일적 정취가 높게 풍기는 시적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격심한 당쟁으로 인한 상처와 소외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자연에의 몰입으로 자연애를 노래한 것으로 7언배율인「牛島歌」[25]를 들 수 있다.

牛島歌

瀛洲東頭鰲扑傾 영주 동쪽 머리 큰 자라가 쥐어짜니
千年閟影涵重溟 천년 깊숙한 그림자, 바다 속에 잠겼구나.
群仙上訴攝五精 신선들이 하늘에 빌어 오정을 잡았는데
風雨一夜聽雷霆 힘자랑 우지끈거려 밤새 우뢰소리 울었네.
雲開霧廓忽湧出 구름 열고 안개 걷혀 홀연히 솟아나니

25)「牛島歌」의 본 詩題는「聞方生談牛島歌以寄興」이다. 이것을 줄여「牛島歌」라 하여 연구 전개키로 한다.

瑞山新畫飛王庭	서산의 새 그림이 왕정에 날아갔네.
溟濤崩洶噬山腹	바닷물결 요동하여 산허리를 헐어내니
谽谺洞天深雲扃	텅빈 동천에는 구름 조각만 깊었네.
稜層鏤壁錦纈殷	가파른 산비탈, 절벽엔 비단무늬 아롱진데
扶桑日照光晶熒	부상에 햇빛 비치니 더욱 밝구나
纍珠凝露濺輕濕	구슬같은 이슬은 엉키어 쏟아지고 추지니
壺中瑤碧羅列星	둘러싸인 벽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운행하네.
瓊宮淵底不可見	아름다운 궁전의 못 밑은 볼 수 없건만
有時隱隱窺窓欞	이따금 은은히 창살만 엿보이는도다.
軒轅奏樂馮夷舞	황제는 풍악하고 해신은 춤을 추니
玉簫寥寱來靑冥	옥소의 고운 소리 하늘가에서 오는 듯
宛虹飮海垂長尾	황홍은 바다 마셔 긴 꼬리를 드리우니
鸞鵬戱鶴颺翅翎	큰 붕은 학을 놀려 긴 날개 나부끼네
曉珠明定塵區黑	샛별은 밝으련만 이 세상이 어둡고
燭龍爛燁雙眼靑	촉룡은 밝으니 두 눈이 푸르구나
驂蚪踏鱓多娉婷	올망졸망 올챙이는 잉어를 밟아 미인도 많고
天吳九首行竛竮	천오는 고개를 설래설래 비실거려 다니네.
幽況水府囚百靈	깊이 잠긴 수부에 백령을 가두었으니
……………………	
太陰之窟玄機停	오래 그늘진 굴 속에 심오한 지경이로다.
仇池禹穴傳神蹟	짝지은 못구멍을 편 것은 신적의 전함이나
惜許絶境訛圖經	이 절경 그림으로 못 그려서 애석하다.
蘭橈挐入欃神形	난을 꺾어 잡아들이니 영검함이 두렵고
鐵笛吹裂老怪聽	쇠 젓대를 불어대면 늙은 문룡 듣는다네.
……………………	

〈前揭書〉

7언배율인 「牛島歌」에 대하여 魚叔權은 「稗官雜記」에서 충암이 제주에 유배가서 方生이 牛島를 얘기한 노래를 지었는데 꼭 귀신과 신선의 말같았다. 내가 朴公에게 묻되 충암의 牛島歌가 어떠한가고 하니 駱村이 답하여 세상에 長吉을 제외하고는 어찌 이런 작품이 있을 수 있는가 하여 보는 바가 나와 같았다[26]고 평하고 있다. 또한 許筠은 「惺叟詩話」에서 그의 牛島歌는 아득하고 황홀하다. 숨어들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재주있는 사람다운 솜씨를 대했으니 申企齋는 그를 長吉의 무리라고 까지 칭찬하였다.[27]

26) 魚叔權 「稗官雜記(3)」 "金冲庵竄濟州作方主談牛島歌正如鬼仙之語餘問駱村朴公曰 冲庵牛島歌何如駱村曰世間除長吉安能有此作所見與餘同也"

27) 許筠 「惺叟詩話」 "其牛島歌眇冥倘恍或幽或類極才人 三致 申企齋推以爲長吉之此也"

고 하여 황홀하고 그윽한 것으로 평하고 있다.

「海島錄」에 수록되어 있는 충암의 유배한시는 전편에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인 인간적인 자탄 우수와 고뇌의 심경 등을 표백하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다. 스스로 달랠 길 없는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꿈·바다·달·바람·구름·안개·술 등의 시어를 통하여 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牛島歌」에서는 牛島의 생성, 신비로운 전설적인 사연, 파도로 깎인 해안선, 아름다운 암벽과 경이로운 파도소리, 아침 햇빛에 반사된 영롱한 무지개, 주변을 황홀하게 하는 禽鳥, 명암이 조화를 이룬 섬마을, 절경이 곳곳에 많은 牛島를 배경삼아 깊은 물에 잠긴 신기한 海底, 특히 섬주위에 많은 절경과 신비로운 모양을 간직한 태고의 모습들, 거기에 서서 관조하는 상대적 객체인 충암 자신 등등의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牛島의 황홀한 秘境을 노래하고 있다.

충암은 이러한 눈부신 광경에 도취되어 어린 듯 취한 듯 자연에의 몰입에 젖어보는 심정을 일관성 있게 토로하다가 유배적 상황인 忘我의 경지에서 현실로 환원하여 근심에 잠긴 자신을 찾게 된다.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상처와 소외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자연에의 몰입으로 자연애를 노래하면서 자연을 통한 황홀함이 그 절정에 잠겨 맑은 기분에서 현실을 망각했다면, 그 환상에서 현실의 삶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더욱 허전함과 고독과 절망으로 우수에 젖어버리는 것이다.

牛島의 자연 절경이 충암의 마음 속 깊이 자극을 주었다면, 외계에 비친 환상적인 대상이 완전히 사라진 내면세계는 심한 좌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부세계의 자연 절경과 내면세계의 악조건 속에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려는 자신과의 대칭적 구조로써 표현하고 있다.[28]

요컨대 충암은 7언배율 「牛島歌」에서 牛島를 보고 난 느낌을 아득하고 황홀하게 숨어들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시적 재능을 다해 표현하였다. 유배생활에서 자연에의 몰입에 젖어보는 심정을 일관성있게 토로하다가 結詞에 와서 '물 솟는데 구름으로 캄캄하니 근심에 잠긴 사람이여, 언제면 돌아가리 꿈에서도 깨지 못해. 슬프다, 나의 길은 다만 문에 막혔음이 한이로다. 언제면 지조높은 어른네 만나 찬바람이나 탈 것인가.(水咽雲溟悄愁人 歸來況兮夢未醒 嗟我只道隔門恨 安得列叟來風冷)' 하고 유배된 자신을 자탄해 하고 있다.

28) 金基東「冲庵金淨의 流配文學攷」(慶熙大碩論_1983) pp. 98~99 참조

3) 無常과 懷鄕

유배생활을 통하여 無常과 懷鄕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가 있다.

충암은 적소에서 서로 같은 정을 나누었던 술벗을 잃고 깊은 상심에 젖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5언배율 2수를 지었다.

悼文士豪

酒醒時想君 술을 깨고서 그대 생각하니
森然入我目 우뚝 저만치서 나를 바라보네
何知千年意 어찌 백년 사는 삶의 뜻을 알리요마는
遽作炊黍熟 갑자기 불을 때니 기장이 익어가네
殘甚散不收 남아 있는 영상이 흩어져 다시 모이지 않으나
何人來整局 어느 누가 와서 판을 정리하리요
豈無壺樽會 어찌 술자리가 없으리오마는
要非心所屬 종요로이 마음 내키는 바 아니라네
絕國禦魑魅 유배지에서는 魑魅를 막으나
逢人多趨起 만나는 사람마다 종종걸음이 많구나
淳質剗崖畦 순박한 성질은 절벽과 구릉을 깎아내고
披展襟懷足 마음 속 깊이 품은 생각 열어펴는데 족하고
君今爲異物 그대는 이제 저 저승의 사람이니
何地開心曲 어느 곳에서 마음의[illegible]응어리를 펴리오.

耽羅有斯人 탐라에 이 사람이 있었으니
嗚呼云不淑 슬프다고 말함도 잘 표현된 게 아니로세
母老兒女穉 어미는 늙고 아녀자는 어리니
萬事付隕鹿 만사를 隕鹿에다 부치네
浮生實可嗟 뜬 인생, 실로 탄식뿐이니
來日未能卜 내일을 능히 점칠 수가 없구나
縱有泉下期 만일 저승길의 기약은 있다 해도
冥茫恐難覿 아득하고 멀어서 아마 보기 어려울 것이로세
寢寐尙云可 寢寐에서 오히려 할 수 있다 하지만
空軒耐幽獨 빈 난간에서 깊은 외로움을 참도다.
丁丁復丁丁 정정 또 정정하며
古人吟伴木 고인은 나무 베는 소리를 읊어보냈거늘

有知與無知 알게 모르게
寄此一聲哭 여기 일성곡을 부쳐 보내네.
〈前揭書〉

죽음은 인정도 정분도 하늘과 땅도 갈라 놓는다. 제주도에서 '世傑'[29]이라 할 만한 사람인 文士豪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인생무상의 정감을 표백하고 있다. 유형수로서 하루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하게 가리워진 자신의 불우한 운명도 어찌 장담할 수 없다는 심정이 엿보이는 시적 분위기다.

충암은 유배생활 중의 고독을 달래고 '何知百年意……無豈壺樽會'할 수 있는 교분이 두터운 文士豪의 죽음에 이르러 비통이 컸을 것이다.

앞의 시에서는 죽음에 이른 직후의 정황을 노래한 것으로 인생을 죽음으로 마감했어도 그것을 실감할 수 없어 하는 감회와 아직 文士豪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고 잊을 수 없는 그와의 교분관계를 노래하고 있다.

뒤의 시는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난 현실적 상황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표출하고 있다.

이어 유배지에서 懷鄕의 정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의 漢詩가 있다.

重陽日有作

海國風烟浩不收 제주는 바람과 안개 많아 추수도 아니되네
離人腸斷故山秋 이별에 애끓으나 정든 산은 이미 가을인데
淸樽黃菊重陽節 맑은 술잔 속에 황국 띄우는 중양절에
何處高丘憶遠遊 어느 높은 언덕에 올라 옛날 놀던 추억을 되새겨 보리.
〈前揭書〉

이 7언절구「重陽日有作」은 그가 바다로 막힌 외딴 섬인 유배지에서 피붙이 살붙이로 맺어진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는 정을 표백한 것으로 그리움의 진정을 腸斷의 恨으로 느낄 정도다. 이러한 懷鄕의 정서가 깃든 내용은 5언율시「春暮」에서도 잘 표출되어 있다.

29) 詩題 悼文士豪에 이어 世傑이라는 註가 添記되어 있음을 볼 때 冲庵과 文士豪와의 두터운 친분을 쉬 이해할 수 있다.

春暮

愁思縈遊絮 수심스런 생각은 솜처럼 얽혀서
隨風過海門 바람따라 해협을 지나니
心情懸素月 내 심정은 밝은 달빛에 걸고
流影照鄕園 흐르는 빛은 고향 동산에 비추어라
永日扃幽戶 온종일 잠그고 가두어진 집에
淸宵倚短垣 밝은 밤에 낮은 울담에 기대어
不堪頻北望 견딜 수 없어 자주 북쪽을 바라보며
春暮且傾樽 저무는 봄 또 술잔을 기울인다.
〈前揭書〉

충암은 懷鄕의 정에 못견디게 참을 수 없어 저무는 어느 봄날에 破酒로 수심에 얽매인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한다. 그럴수록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고향의 처자식들이다. 곧 '心情懸素月 流影照鄕園'하는 심정으로 유배지에서 그리움의 진정을 토로하고 있다.

나) 別恨과 痛恨

유배생활을 통하여 別恨·痛恨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가 있다.

贈弟別

天畔羈懷切 하늘가에 얽매인 정회는 절절한데
……
汝歸應拜母 너는 돌아가 마땅히 어머니에게 절하겠고
兄住尙君吾 형은 살면서 더욱 나를 생각하리니
骨肉空幽夢 골육의 형제도 헛되고 아득한 꿈에서나 보고
親知各塞隅 친한 지기들도 각각 구석지에 막혀 있도다.
海山瞻皎月 海山이 하얀 달을 우러르고
風雨愼征途 비 바람이 갈 길을 조심스럽게 하는구나.
〈前揭書〉

위리안치의 명을 받은 충암을 따라나섰던 동생은 中宗 15년 윤 8월 9일 외딴 제주섬, 죽음의 땅에 형을 두고 이별하게 된다. 충암은 형제간의 우애가 두터웠고 각별히 동생인 昜을 사랑하였다. 그가 淳昌에 있을 때

지은 5언시 「別弟易」을 보면 '汝去寧吾母 吾留阻我親 去留分汝我 吾汝本同身'이라 나타내었는데 그 結句의 '吾汝本同身'은 형제는 동기간이요, 한 몸임으로 우애가 있어야 함을 표출하고 있다.

5언율시 「贈弟別」은 낙엽이 떨어지는 초가을에 외딴 섬인 죽음의 땅에 혼자 남아 있는 충암이 자신을 두고 떠나가는 아우와의 뼈져린 별리의 정한을 토로한 것이다.

유배지 제주를 함께 따라 왔다. 떠나는 아우에게 준 「贈弟別」은 골육간의 애끓는 이별을 느끼기에 어렵지 않다. 恨맺힌 유배지를 恨을 안고 함께 왔다가 떠나는 동생이기에 두 恨의 만남이 옷자락을 젖게 했을 것이다. 유배란 골육의 형제도 헛되게 갈라 놓는다. 그리움은 다만 아득한 꿈에서나 만나 보고 친한 지기들도 각각 구석지에 막혀버린 것이다.

이러한 別恨의 정감을 5언절구 「贈別」에서도 짙게 나타나 보인다.

贈 別

回首送君處 고개를 돌려 그대 보낸 곳을 바라보니
蒼茫海日昏 넓고 아득한 바다엔 해만 뉘엇뉘엇 져가네
家山應見過 고향을 마땅히 보고 지나련만
花落掩柴門 꽃잎이 떨어져 닫혀진 문을 가리는구나.
〈前揭書〉

유배지까지 함께 와서 떠나가는 그대의 앞길은 해가 뉘엇뉘엇 떨어지는 넓고 아득한 바다다. 다시 만날 기약없는 이별이기에 恨만이 맺힌다.

이어 5언율시 「驛亭別」에서도 別恨의 정감을 다음 같이 나타내었다.

驛亭別

驛亭分袂日 站驛의 정자에서 헤어지던 날
溟海遠征時 아득한 바다를 멀리 나아가던 때처럼
此別情思在 이런 헤어지던 정한이 생각에 있듯
應將金石期 마땅히 금석같이 굳은 기약을 하리.

絕國孤生別 유배지에서 외로이 생이별하니
溟波未有期 아득한 물결에는 아직 기약이 보이지 않네
贈君皎明月 임에게 희고 밝은 달을 보내고저
天末寄相思 하늘 끝에서 서로 그리움만 부치누나.
〈前揭書〉

곧 바다로 막힌 외딴 섬에 유배되어 외로이 생이별한 몸, 눈앞엔 아득한 바다 물결뿐, 언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직 기약도 없다. 5언시 「驛亭別」은 다만 헤어지던 사무치는 別離의 통한을 굳은 기약으로 달래보고 북향하여 임에게 밝은 달을 보내고, 저 하늘 끝에 부치는 그리움의 丹衷과 別恨의 정감을 표백하고 있다.

Ⅵ

冲庵의 濟州流配漢詩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冲庵은 中宗의 反正에 뒤이어 대두된 勳舊派와 詞章派와의 갈등 대립에 있어서 趙光祖와 더불어 형식적인 道學派의 중심인물로 詞章派가 일으킨 己卯士禍로 말미암아 流配된다.

둘째, 乙卯士禍로 말미암아 유배된 冲庵은 錦山流配, 珍島移配, 濟州島 圍籬安置 등의 경로를 밟아 유배지 제주에서 賜死를 당한다. 사화 이후 朝鮮朝의 선비 지식인들이 출사, 유배, 은둔 등의 경험 중에 사사의 비운을 당한 것이다.

세째, 冲庵의 濟州流配漢詩는 주로 그의 文集 등속의 「海島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은둔도피와 자연애, 無常과 懷鄕 別恨과 痛恨 등의 정감을 표현한 경향도 있으나 그 중에도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인 身上을 자탄한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반대당에게 모함당하고 君王에게 忌諱당한 선비로서 유배생활 중 당연히 갖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가 儒學에 입문하기 전 老·莊에 젖었던 정신적 영향의 반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째, 冲庵의 「臨絕辭」는 유배자의 자탄을 내용으로 한 絕調요, 漢文學上 朝鮮의 楚辭라 일컬을 만하다. 그것은 조선조 모든 유배자들이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심경을 단적으로 집약한다. 流配漢詩의 진면목을 보였다는 점에서 漢文學上 그 가치의 재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 믿는다.

다섯째, 冲庵의 7言排律인 「牛島歌」는 牛島의 勝景을 숨어들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며 시적 재능을 다해 표현한 작품으로 유배생활에서 심도있게 자연에의 몰입에 젖어보는 심정을 일관성 있게 토로하다가 結詞에 와서 유배된 자신을 자탄해 하고 있다. 「牛島歌」는 山林文學 형성 초기의 대표작으로 그 가치의 재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